

광주서 호남 최대 규모 ‘미래산업엑스포’ 열린다



25~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혁신기업 270개사 570개 부스
미래모빌리티·로봇기술 등 공개
전시·체험·채용 ‘테크박람회’ 운영

광주광역시에서 호남 최대 규모의 산업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25 광주미래산업 엑스포’를 오는 25~28일까지 나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부리산업전시회 △국제IoT가전로봇박람회

△드론·UAM 전시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호남권 최대 산업전시회다.

전시회에는 270여개 혁신기업이 570개 부스를 운영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로봇·가전제품 등 최신 기술을 볼 수 있으며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기술테크관’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중심공장(SDF) 구축의 핵심요소인 AMR·MPR(물류모빌리티 로봇) 기술, 수요자 맞춤형 차량(PV5), 수직이착륙 UAM(미래항공모빌리티) 모형기 등을 선보인다.

또 ‘미래산업융합포럼’에서는 AI융합모빌리티 신기술, 전기차 화재예방 서도기술,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등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광주 함께 JOB 페스타’와 연계해 청년, 여성 등 구직자 채용 기회도 마련한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형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자율주행차 시승 △드론축구 △3D프린팅 체험 △로봇 요리 시연 △EV차량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마지막날인 28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로봇경진대회와 인기 과학 인플루언서 허성범 씨를 초청해 ‘제4의 물결, AI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업부스 내 각종 경품 추첨, ‘광주방문의 해’ 홍보부스 굿즈 할인, 시민체험형 부스 등 전문 참관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도 기획됐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산업 전시를 넘어 미래산업의 가능성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산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기술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막일인 25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하며,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광주 지역 산업단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일반 관람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광주신세계, ‘MZ 인기’ 해외직수입 빈티지 팝업

20일부터 14일간 ‘비바무역’
본관 지하 1층...3+1 프로모션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MZ세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해외 직수입 빈티지 팝업스토어를 다시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비바무역’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비바무역’은 남양주에 위치한 참고형 빈티지 숍으로, 스트리트 브랜드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다양한 중고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이에 따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직접 방문해 주목받았다.

이번 팝업에서는 폴로 랄프 로렌, 버버리, 막스마라, 타미 힐피거, 리바이스, 나이키, 디올, 모스키노, 겐조, 캘빈클라인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다. 특히 폴로 랄프 로렌 셔츠·니트, 버버리, 막스마라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이 5만원대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앞선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풍성한 혜택이 준비됐다. 오는 22일까지 팝업 첫 3일동안 비바무역 입장 고객에게는 바바베어 키링이 선착순 증정되며, 50% 할인 특가존에서는 타미 힐피거 셔츠를 1만 9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또한, 3+1 프로모션을 통해 한 번에 4개 제품을 구매하면 가장 저렴한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며, 10/30/50만 원 이상 구매 시 금액별로 빈티지 스카프, USA 티셔츠, 스토조 텀블러를 증정한다.

특히 27일부터 29일까지는 비바무역과 플레이 스맛(구 신관)에서 합산 10만원 이상 구매 시 7% 리워드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리워드는 본관 지하 1층 사은행사장에서 적립 가능하다. 윤준명 기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모델이 와인을 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백, 최대 80% 할인 ‘롯데 와인 워크’ 개최

고객 참여 프로그램 우승와인 공개

롯데백화점은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전 점포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와인 행사 ‘롯데 와인 워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약 6000여종의 와인이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특히 지난 5월 고객 참여 프로그램 ‘메가 테이스팅’에서 우승한 와인을 최초로 공개해 특별 할인가로 선보인다.

‘메가 테이스팅’은 전국 8개 점포에서 8종의 와인을 블라인드 시음한 뒤 고객 투표로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우승 와인은 △‘아리스토스 바론 2015’ (750ml, 9만5000원) △‘에이투시 오레곤 샤도네

이’ (750ml, 3만2000원)로, 현장 투표에서 각각 70% 이상의 선택을 받았다.

다양한 구매 혜택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20만원 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롯데백화점 와인 클럽 회원은 5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 구매시 등급별로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와인 플랫폼 비비노 평점 4.0 이상을 기록한 △‘파스칼 졸리베 블랑 뒤메 2022’ (750ml, 4만9000원), 여름철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 △‘썸머 하우스 소비뇽 블랑 2023’ (750ml, 2만원) 등 다양한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은행, 지역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특별출연
지역 중점산업 기업 금융 혜택

광주은행은 19일 북구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내 중점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산업, 제조업, 미래차

등 광주시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공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8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협약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5%의 보증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675억 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시는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업이 보다 나은 금융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기 위한 상법개정 등 증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 하면서 코인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는 별도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자의 자격을 준비금 5억원 이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암호화폐의 미래

인자로 낮춰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패를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한국도 뒤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화폐 정책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투자자들이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그에 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다행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국내 증시 ETF 허용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까지 공표하고 버지니아 등 몇몇 주 정부들이 실제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트코인을 선두로 한 암호화폐가 미래의 중요 자산으로써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디지털 자산으로 국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최소한 국내 증시의 ETF 정도는 신속하게 허용을 해야 할 것 같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을 국내 증시 등 공인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큰 약점을 갖고 있다. USDT는 기존통화인 달러에 기반을 둬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환전수수료, 은행수

수료가 없고 즉시결제, 익명성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적인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망 전산처리 시스템이 잘 마련되지 실시간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은행 수수료도 거의 없는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확장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그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비트코인의 미래는 알 수 있다. 신정부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포용도 늦기 전에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